

Looking Back on 4 Years Reading Guidance

# 讀書指導 4年間을 回顧하면서

— 實效거들 高校 讀書指導 方案은 없을까? —

朴 容 科  
 城東高司書教師

## 1. 序 言

讀書의 必要性·重要性이나 當爲性 및 讀書指導의 意義·趣旨등에 관한 理論은 古今 東西를 통하여 많이 강조되어 왔고 또 많은 讀書·教育關係誌에서도 다뤄 왔으므로 再論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拙者는 本校에서 展開·指導된 讀書의 生活化 運動 4年間의 生 生 발달한 經驗을 토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高校讀書의 바람직스런 方向으로의 實質의 可能性 문제와 「讀書指導」를 行政의 次元에서 實績爲主의 形式的인 性을 벗어나 學生과 國家의 장래를 念慮하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일어나는 愛情과 精誠을 갖고 해 보자는 뜻에서 또 建國後 처음으로 首都教育의 장학방침의 하나로 싹터 活氣차고 意欲의 推進되어 가는 讀書運動(指導)의 學風이 全國化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校의 讀書指導 전반에 대한 讀者들의 냉철한 評價와 助言을 받아 보다 忠實하고 創意的이며 實用性있는 讀書指導의 方法을 模索해 보고자하는 所望에서 이 글을 쓴다. 本校는 1975學年 2學期부터 「새 城東건설」의 메아리에 보조 맞춰 讀書指導의 새 旗幟를 들었다. 그런데 讀書指導의 比重은 아무래도 良書읽고 그 事後處理(讀後感 作成)를 하는 일이라는데 있다는 생각이 敎師나 學生에게 支配的인지라, 처음에는 「또 일거리·속제거리 하나 더 생기는구나」「누가 능히 큰 일을 誠實히 遂行할 수 있을까?」하는 重壓感에서 始作되었음을 솔직히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 2. 讀書와 讀書指導란?

우리를 대부분은 「讀書」하면 「良書읽기」로 「讀書指導」는 「良書읽기지도」나 「讀書感作成指導」로 알고 있다. 그런데 學生讀書指導만은 위와같이 다루서는 안된다는 것을 筆者는 「'76년도 世界讀書科學會(IRA)세미나」에 參席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即, 學校校育의 중

점은 學生들로 하여금 賦與된 學科目的 履修에 있고 그것은 敎科書를 讀破치 않고는 不可能하므로 그들이 限定된 時間에 그 많은 分量의 敎科書를 어떻게 빨리 또 잘 읽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른바 「讀書力開發」의 指導가 더 必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讀書指導」는 敎養과 人格 涵養을 목표하는 「良書읽기지도」와 敎科目的 成就를 위한 「讀書力開發指導」 및 敎科書의 內容과 관련깊은 「資料의 利用指導」모두를 포함해야 진정한 「學生讀書指導」가 된다는 것으로 믿고 실시해 왔다.

## 3. 讀書指導는 누가……?

(1) 學生讀書指導를 누가할 것인가? 특정한 전담교사 혼자서? 아니면 全敎師가 다 담당자인가? 1975년 봄에 世界讀書科學會 韓國支部(韓國讀書科學會 KRA)가 설립되어 昨年末까지 自治의 數차례의 讀書力開發, 速讀法指導등에 관한 公開講演會와 會議을 갖고 또 1976년 8월에는 서울에서 「世界讀書科學會 '76년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讀書指導에 관련하여 많은 努力을 傾注하여 왔는가 하면 學校圖書館部會 서울특별시 司書敎師會에서도 每年 3~4 차례의 自治的 會議에서 讀書指導에 관한 主題講演과 討議를 거듭하여오고 있다. 그런데 讀書指導에 關한 이런 自治的 公式機構에 加入한 敎師數나 또 이 機關이 主管한 讀書指導講座에 「관심있는」敎師가 과연 몇 분이나 自發的으로 參席하였는지 여기에 그 數字를 公開한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이에 反해 '78학년도 讀書指導를 위한 行政的 講座에는 前者의 경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多數敎師가 參席하였던 것이다. 어떤 목표의 達成을 위해서는 自律的인 他律的인 그 方法을 가리지 않겠으나 「學生」讀書指導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覺醒된다면 「讀書指導」라는 同一性質의 講座·會議에 參席한 敎師의 數字가 그토록 차이가 날수 있을까? 兩者에 늘 參석하여 注視하여 온 筆者로서는 그것은 아직도 教育的으로 남

특이 가지 않고있는 事件中の 하나가 되고있다.

(2) 讀書指導를 실시할 때 專擔教師가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同僚教師나 學父母로부터 받는 陰·陽의 拒否反應이었다. 「讀書가 많은 學科目에 짓눌려 시달리는 學生들에게 어떻게 實效를 거둘수 있는가? 공연히 時間만 浪費하는 것이며, 남의 讀書錄이나 베끼는 形式만 가르치는 무서운 愚를 犯하는 行爲가 되지 않느냐?」하는 內容으로…… 讀書指導를 건담교사가 아무리 치밀한 全體指導計劃과 열성을 갖고 시행을 해도 一人으로서는 그 많은 指導領域을 그것도 多數學生을 상대로 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에서는 결코 所望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란 정말 어려웠다. 따라서 讀書指導는 누가 擔當해야할 것인가? 한 마디로 校長·校監先生任을 비롯·全教師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讀書의 범위와 폭 그 중요성이 넓고 큰데 教師의 無關心이나 非自發的 協助中에서 學校讀書指導가 그 所期의 目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처럼 安易한 생각도 없을 것이다. 특히 讀書指導는 教師中 學生生活에 영향력이 가장 커 學校教育의 실제 擔當者요 中核的 位置를 占하고 있는 學級擔任에 의함이 가장 效果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 4. 讀書指導는 어떻게……?

學生들로 하여금 讀書의 生活化를 위하여 그 동안 실시된 讀書指導의 구체적 方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讀書興味誘發과 讀書雰圍氣助成

讀書指導의 근본취지가 學生으로 하여금 冊을 읽게 하고 또 많이, 나아가 讀임도록하는데 있다. 또한 讀書는 自己의 必要와 어떤 動機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讀書指導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그 必要와 動機를 鼓吹시켜 줌으로써 學生의 讀書活動意欲이 自發的으로 實踐되도록 誘導해야하는 일이다. 따라서 學校 전체가 讀書雰圍氣로 充溢되어야 하며 그것은 곧 學生들에게 自己發見의 能動的 興味로 되어 더욱 讀書活動을 잘하게 된다고 한다. 本校에서도 우선 이 分野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 (1) 圖書館을 통한 讀書資料紹介

보통 讀書指導하면 「必讀·精讀 또는 勸獎圖書目錄」을 만들어 이를 義務的으로 읽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讀書는 學生은 물론 教師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읽을거리」는 될수록 多樣해야하며 특히 教科目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 學校圖書館 所藏資料는 물론 各出版物을 통하여 必要한 資料를 收集·整理하여 이를 「今週의 讀書資料紹介【제·회】」로 油印物化하여 거의 隔週로 全 교직원과 學級에 배포·게시했다.

한편 年中 特別週間【例：科學，教育，圖書館，體育，家庭，讀書등 週間】行事때는 그에 알맞는 資料를 檢索하여 소개함으로써 讀書資料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適書選擇의 動機도 賦與했다.

##### (2) 讀書指導委員會를 통한 資料紹介

月 1회 H.R.시간에 讀書指導委員(教師)들이 윤번제로 放送으로 讀書例話를 통하여 讀書資料를 소개함으로써 一齊讀書指導를 실시했다. 특히 이 時間에는 教科目과 관련된 資料들도 소개됨으로 大人과 밀접한 讀書指導가 되어 讀書興味誘發과 그 雰圍氣助成에 더욱 이바지하여 왔다.

##### (3) 優秀讀後感募集 및 參加

校內 優秀讀後感募集을 참가 대상자의 범위로 學父母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던 결과 讀書雰圍氣는 한층 高調되었다. 學父母中에는 왕년의 讀書實力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開校이래 처음있는 行事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또 校外 諸機關에서 실시하는 우수독후감 모집에의 應募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관심있는 學生이 多數 參加하여 그 중 大韓出版文化協會 主管의 제15회 독후감 모집에서는 高校部 최우수작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 (4) 讀後感發表會 및 參加

1,2학년 學級別로 月 1회 H.R.시간을 이용하여 讀後感發表會를 갖고 또 특별부터 圖書館班과 圖書館委員中心의 讀後感發表會를 도서관에서 가지므로 더욱 讀書意欲을 고취시켜 주기도 했다. 한편 도서관원들로하여금 他校에서 실시하는 讀書發表會에 참가토록하고 또 學校長의 裁可아래 他校와 合同讀書發表會도 윤번제로 개최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進進한 思考力과 批判力을 갖게되고 讀書에 대한 動機를 계속적으로 誘發할 수 있었다.

##### (5) 讀書資料展 開催

圖書館週間·讀書週間 및 校內 課題物 展示會때 各分野의 희귀한 資料와 校內外 優秀讀書錄을 함께 전시하였다.

##### (6) 月中讀書順位 調査發表

月初에는 全學生이 전달에 읽은 冊(약 300여종)의 讀書順位를 조사하여 베스트 20位까지 選定 이를 油印物化하여 全 교직원과 學級에 배포하고 게시했다. 每期末에는 그 綜合順位를 定하여 學校新聞과 校誌에 게재하고 新入生들에게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배포·지도해 왔다. 이 讀書順位發表會의 學生들의 긴장감과 박진감은 불만 하였다. 게재된 油印物에서 自己가 읽은 冊의 順位가 몇 번째인가를 찾기에 바쁜 표정과 주고 받던 말들은 絶작이었고…… 이것은 本校의 讀書의 傾向과 幅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資料이다. 베스트

20위 冊을 읽도록 권하는 無言의 刺戟劑가 되기도 했다. 4年間 계속 首位를 占한 것은 「罪와 罰」이었다.

(7) 指導敎師의 讀書關係會議 參加

情報化 時代의 敎師는 新知識의 습득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先進外國에 比해 讀書指導關係가 약 半世紀나 뒤진 우리 의 立場을 考慮할 때 指導敎師가 各種 讀書關係會議에 參加하는 자체는 讀書雰圍氣助成과 讀書指導에 여간 큰 힘이 되지 않았다.

(8) 招請讀書講演會

高校讀書指導에 가장 權威있는 專門家(敎授)를 매년 1회 초빙하여 독서 강연회를 가지므로 독서분위기를 크게 助成하기도 하였다.

2. 自律讀書指導

讀書資料만 제시해 놓고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每月末까지 그 달의 讀後感을 노트에 累加의으로 記錄하고 來月에 읽을 圖書名을 기재하게 함으로 計劃讀書가 되도록 지도했다. 讀書錄은 그 자체가 親近한 讀書의 對象이 되고 나아가 人間成長의 바로미터 구실을 한다고 한다. 이 노트(讀書錄)는 每月末 擔任의 확인을 거쳐 圖書館에 수합하여 學校 전체의 讀書推進度를 評價했다.

3. 敎育評價로서의 讀後感 綜合 試驗

讀書感 作成의 形式化를 막고 근면·성실한 讀書生의 실력발휘를 위하여 年2회 期末讀書感 綜合試驗을 실시하고 그 성적을 讀書錄 評價와 함께 國語科點數에 評算해 왔다.

4. 讀書力 開發

讀書의 效果를 決定지어 주는 要因은 먼저 讀者의 讀書力을 들 수 있다. 即 讀書에 기본되는 能力인 選書問題, 얼마나 많이, 빨리 그리고 빠르게 읽을 것이 냐 등의 方法문제 특히 學生들에게는 현재 과다한 敎科書를 어떻게 精讀하며 速讀하느냐 등의 문제가 가장 關心있는 分野이다. 학생 개인의 身體的·知的·情緒的 讀書要因의 具備度에 따라 생기는 讀書能力差는 마치 欲狀價格의 差와 같은 현상이다. 따라서 學生讀書指導의 先決問題는 바로 이 '讀書力 開發'에 있다고 믿고 入學前後 약 1개월간과 또 擔任이 추천한 讀書問題兒와 讀書力 向上을 希望하는 學生을 위하여 '讀書力 開發 프로그램班' '速讀法 入門班'을 설치하여 방과후 1시간씩 도서관에서 실시한 바 그 效果는 놀라울 정도 였다.

5. 기타 書誌療法 Bibliotherapy

學生의 日常生活 또는 學習活動에서 생기는 諸問題를 解決하는데 필요한 情報·圖書 및 그 밖의 資料를 충분히 利用할 수 있는 態도와 技術을 익히도록 하는 讀書指導의 應用的 側面中 前者의 경우 即, 生活에서

適應異常에 빠져있는 問題學生에게 적당한 圖書를 권하여 自己行動을 反省할 機會를 提供하는 讀書中心의 카운셀링인 이른바 '書誌療法'이 있다. 요즘 學生들의 生活指導문제가 무심하여 가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이 方法은 一石二鳥의 效果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全 敎직원에게 學生問題를 다룬 圖書의 추천, 소개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該當圖書의 收集은 어려운 일이었고 또 對象學生자체의 讀書能力에도 문제가 있어 이의 만족할 만한 실시는 어려웠다. 이 療法 실시중 가장 많이 읽힌 冊은 「호밀밭의 파수군(일명 斷崖로도 번역됨)」과 「적극적 사고 방식」이었다.

5. 再考되어야 할 問題들

우리가 平生을 印刷物과 떠나 살 수 없기에 아무래도 平生讀書의 習慣은 學校時節에 완전히 인박이도록 學生을 指導할 義務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4年間의 경험을 略述했으나 他校에서 行한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 다만 讀書指導를 擔當했던 敎師로서 그동안의 經驗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高校讀書指導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현되기 위한 方法 몇가지를 하소연 해 본다.

(1) 入試制度를 改善하자

과중한 學科目과 치열한 入試競爭의 불길앞에 學生들이 一般敎養讀書를 외면하는 경향이 習慣化되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리고 이러한 心理的 不安定과 壓迫感에 사로잡혀 있는 學生에게 讀書를 권장하고 있는 學父母는 몇분이나 되며 敎師는 과연 몇명이나 될까를 묻고 싶다. 讀書指導를 단순히 學科目과 관련시켜 '讀書力 開發'에만 둔다면 國語科의 읽기지도에 포함시켜 도 좋을것이므로 讀書指導의 意義는 半減될 것이다. 참으로 學生들이 스스로 願하는 冊을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고 또 敎師가 指導紹介하는 冊을 읽도록 하려면 大入試를 비롯하여 各種 試驗에서 敎科目과 관련된 主題의 冊(良書)을 읽지 않으면 答할 수 없는 문제를 出題하도록 制度의인 改善이 要求된다.

(2) 特定科目의 比重을 낮추자

國·數·英科目의 비중이 他에 비하여 너무나 크다. 또 매일 숙제하기에도 시간은 태부족인 현실이다. 또 學校成績이나 大入의 合·不合格의 관련이 國·數·英科目에 달려있는 실정아래서 과연 學生들이 安定된 가운데서 讀書할 수 있을까? 學校圖書館이 國·數·英을 공부하는 自習室로 둔갑하는 현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또 敎養讀書를 많이 한 학생의 성적이 그리 좋은편이 아니라는 統計는 敎育的으로, 心理的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昨年 世界各國高等學校敎科書 展示會에 출전된 外國高校敎育過程을 보니 社會科만 3

단위이고 數學을 비롯 他과목은 1단위에 불과하였음을 왔다.

(3) 司書局의 設置와 讀書指導專擔獎學士制度를 채택하자

效果的인 圖書館運營과 讀書指導를 위하여 上級機關에 司書局의 設置와 一線學校의 讀書指導를 關장할 讀書指導 專擔獎學士制度를 先進國의 例를 따라 早速히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世界讀書科學會 會員의 反對는 該人者로서 구성되고 있다고 한다.

(4) 기타

① 學校에는 필요한 讀書資料가 充分히 所藏되어야 할 것이며 ② 學校圖書館 시설의 과감한 확충과 겨울 난방시설의 完備 ③ 그리고 讀書指導期間을 高 2학년 1학기까지로 限定하여 실시함이 入試와 關連된 現教育 制度下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安穩함을 주는 독서지도가 되지 않을까?

### 「KDC」개정에 따른 意見接受

本協會는 “韓國十進分類法(KDC)”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今年中에 그 개정 3版을 내용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도서분 分類擔當者들의 意見을 종합하여 보다 充實한 內容의 개정판을 발간할 계획이오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韓國十進分類法(KDC)」을 再검토하여 다음 內容에 대한 의견을 오는 3月末까지 본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主題 및 필요한 項目이 빠진 경우.

(1) 그 內容과 (2) 이를 어느 項目에 넣으면 適合한가

2. 각 項目中 展開를 보다 상세히 할 部分과 그 內容

3. 發見된 誤字와 특히 索引中의 잘못된 分類番號

4. 例가 잘못된 部分(分類번호 등)

5. 기타 「KDC」사용중 不充分한 部分이 발견된 點

위의 內容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圖書館學概論」發刊에 즈음하여

—現代圖書館學叢書 第1卷—

우리 나라의 圖書館學 發展의 始發點을 1957年 大學에서의 도서관학과 設립을 기점으로 삼는다면 이미 20여년의 學問的 체험을 쌓아온 셈이됩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도서관학의 연구와 教育은 어느 학문에 못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본협회에서는 現代도서관학을 적극 도입키 위하여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총서와 기타 基本운영 참고 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80여 種의 도서가 나왔습니다. 이 도서는 그간 우리 나라에서의 도서관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서 급속히 새롭게 發展되어 나가는 도서관학의 세계적추세에 뒤떨어 지지 않기 위하여 서는 보다 새로운 理論이 도입된 現代도서관학자료 가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각 대학도서관학과의 급격한 증설로 인하여 基本교재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대학 교수들은 그들이 매년 양성해 내는 600여명의 전문인들의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도서관학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그간 교수한 내용과 학문적 체험을 토대로 현대도서관학총서를 발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현대도서관학총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반대함과 중요성때문에 그동안 각종 도서관학 자료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 본협회에 출판책임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전문대학교수협의회에서 계획한 「현대도서관학총서」 발간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그 출판책임을 맡아 이미 준비된 「도서관학개론」의 원고를 정리하여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圖書館學概論」은 도서관학의 기초이론과 학문으로서의 성격정립에 큰 비중을 두었고 앞으로 발간될 10여種의 各論은 현대도서관학 이론을 적극 도입함과 아울러 새로운 이론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內容으로 발간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現代圖書館學叢書」는 도서관현장의 모든 司書와 도서관학 을 연구하고자하는 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文獻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本 「現代圖書館學叢書」를 발간함에 있어서 全體 圖書館界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